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관계

Relationship among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and Senior Life,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 and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김남원, 장선철, 임은실
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Nam-Won Kim(one@onnuri.org), Sun-Chul Jang(scjang@jj.ac.kr),
Eun-Sil Lim(bible10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와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고, 은퇴 이후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만족도가 긍정적이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었고, 은퇴 이후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 은퇴준비 행동 | 은퇴만족도 |

Abstract

This research defin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and senior life (PRSL),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RPA), and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RSL) to know the expectation about retired life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retirement related factors, PRSL, and RPA. For this, from November 2015 to February 2016, I researched from 20 to 69, 1,500 currently working adults in the country, mailing surveys with the letter introducing this research's purpose and procedure and having them send them back, or researcher's spreading and collecting the surveys, eliminating 83 cases of negligent answers, finally analyzing 1,417 surveys. The result shows age, monthly income, and residing at their own places made more positive PRSL, RPA,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level (FRPL), and expectancy about satisfactory retirement life. When they had less children, PRSL and RSL were higher. When they had more children, RPA was more proactive, and FRPL was higher. When they had positive PRSL, RPA was more proactive, and expectancy about retired life was higher.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defining differences of retirement related factors and causal relationships among PRSL, RPA, and RSL.

■ keyword : | Perception of Retirement and Senior Life (PRSL) |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RPA) |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RSL) |

I. 서론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은퇴 이후 길게는 살아온 기간만큼 더 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진[1]).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60세이고, 평균수명은 81.5세이다[2]. 은퇴 이후 약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적극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은퇴관련 연구에 의하면 은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62.2%, 자녀나 친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27.5%나 된다고 한다(김종모, 이지영, 박창제, 여윤경[3-6]). 이렇듯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정운영[7]). 준비 없이 맞이한 100세 시대는 조기사망보다 큰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은퇴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은퇴준비는 은퇴 이후 삶을 전망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배문조[8]).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여러 각도에서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은퇴관련 연구들은 은퇴자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이루리, 장몽교, 강정애, 허균석, 김연진, 곽민주[9-14]), 은퇴계획이나 설계관련 연구(김종모[3], 박창제[5], 강정애[11], 차경옥 외[15], 홍성희[16])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은퇴 이후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준비를 계획수립 여부와 같은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은퇴준비 수준의 적정성 같은 측면만 제시하면 은퇴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은퇴자산으로만 은퇴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인식에 따라 은퇴만족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객관적인 은퇴준비 행동과 은퇴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주관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될 필요가 있다(정운영[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은퇴준비와 주관적 은퇴준비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 은퇴관련 변인과 주관적 은퇴관련 변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측정변인의 정의

허균석[12]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은퇴에 대한 의식 강화와 경제적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교육 및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루리[9]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준을 파악한 연구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인식에 따라 은퇴준비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노후생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퇴준비의 또 하나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은퇴준비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주성[30]은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은퇴준비 행동 여부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조망한다고 밝혔고, 김연진[13]은 심리사회, 재정요인, 생활양식, 건강과 삶의 만족, 정신건강, 미래시간조망이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은퇴준비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인 변인과 은퇴준비 행동 같은 객관적인 변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정운영[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적 은퇴관련 변인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만족도를 설정하였고, 은

퇴준비 행동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객관적 은퇴관련 변인으로 은퇴준비 행동을 설정하였다. 은퇴인식은 노인이 시작되는 시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주요 수입원, 1인 최소 월 생활비이고, 노후생활 인식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퇴준비 행동은 재정, 건강, 시간 및 여가, 역할에서 은퇴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였다. 은퇴만족도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다. 본 연구는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아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은퇴만족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역연령으로는 은퇴할 나이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활동 및 결혼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은퇴 및 노후준비 수준이 차이가 난다. 광민주[14], 홍성희, 고화정, 김미령, 홍성원, 이소정[16-20]은 연령이 많고, 배우자가 없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고,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으며, 학력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일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광민주[14]는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총부채가 낮을수록 은퇴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홍성희[16]는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여성보다 남성, 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고화정[17]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이 은퇴자의 생활방식을 결정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김미령[18]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부부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만족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홍성원[19]은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소정[20]은 여

성, 수입이 적고, 학력이 낮고, 연령이 어릴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3.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관계

은퇴 및 노후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은퇴준비 행동 유무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조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가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shbein과 Ajzen[21]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은퇴관련 연구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면 그 이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배문조[8], 개인의 과거 경험과 인식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Hira[22].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은퇴인식 관련 연구 김종모[3], 허균석, 김연진[12][13], 차경욱, 홍성희[15][16], 한경혜[23]들도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은퇴와 노후생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은퇴준비 행동,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모[3]는 노후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포함한 은퇴준비 수준이 높고, 은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허균석[12]은 은퇴관련 문제는 대부분 은퇴준비 부족에서 기인한다면서 은퇴 진입 이전 단계부터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은퇴준비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연진[13]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은퇴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은퇴 이후 삶을 성공적으로 가꿀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차경욱[15]은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재무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은퇴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홍성희[16]는 개인의 은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은퇴준비와 적응수준이 달라진다고 밝히면서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경혜[23]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김정현[24]은 은퇴만족도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이 높으며, 적응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은퇴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는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및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은퇴준비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은퇴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규명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자녀 수, 월평균 수입, 주거형태)에 따라 은퇴관련 변인들이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은퇴 및 노후생활인식, 은퇴준비행동,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60대 이상 조사대상자들은 역연령으로는 은퇴했을 나이지만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계
연령	20대	375(26.5%)
	30대	248(17.5%)
	40대	338(23.9%)
	50대	336(23.7%)
	60대	120(8.5%)
자녀수	없음	509(35.9%)
	1명	194(13.7%)
	2명	568(40.1%)
	3명	124(8.8%)
	4명 이상	22(1.6%)
월평균 수입	400만 미만	636(44.9%)
	400~500만 미만	369(26%)
	500~600만 미만	164(11.6%)
	600~1,000만 미만	181(12.8%)
주거 형태	1,000만 이상	67(4.7%)
	자가	820(57.9%)
	전세	293(20.7%)
	월세	222(15.7%)
	기타	82(5.8%)
		1,417(100%)

2. 조사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5문항), 은퇴 인식(9문항), 노후생활 인식(11문항), 은퇴준비 행동(29문항),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9문항), 은퇴만족도(13문항)를 묻는 질문 7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의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균석[12]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허균석은 노인시작시기, 노후 예상문제, 자녀동거의사, 부모부양책임, 자녀부양기대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인식을 노인 시작 시기, 은퇴이후 가장 큰 문제, 자녀와 동거 희망여부, 인지적 은퇴준비 시기, 실제 은퇴준비 시기, 자녀의 부양기대 유무, 노후 주요 수입원, 최소 원 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월 적정자금을 묻는 질문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10이다. 둘째, 노후생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모[3]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3]은 노후생활 인식을 3개의 하위영역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신뢰도는 각각 .585, .668, .74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노후생활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적 노후생활 .673, 신체적 노후생활 .781, 사회적 노후생활 .811, 노후생활 인식 전체 .801이었다. 셋째, 은퇴준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연진[13]이 PRePS(Noone,

Jack H, Stephens, Christine, Alpass, Fiona, 2010)를 한국어로 번안한 K-PrePS 척도를 고찰하여 척도록 재구성하였다. [13]이 사용한 K-PrePS 척도의 신뢰도는 .797~.924였고 본 연구에서 고찰하여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908이었다. 넷째, 경제적 은퇴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모[3]가 사용한 척도를 고찰하여 사용하였다. 김종모[3]가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재정·주거 .712, 경제활동 .770, 건강관리 .825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주거, 경제활동, 건강관리 등을 묻는 9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822이었다. 다섯째, 은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모[3]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김종모[3]는 은퇴만족 예측정도를 재무적, 비재무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재무적 만족도 .930, 비재무적 만족도 .814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만족 예측정도를 은퇴만족도 명명하고 신뢰도를 실시한 결과 재무적 만족도 .950, 비재무적 만족도 .853, 은퇴만족도 전체 .951이었다. 이 조사도구는 본 연구자의 다른 연구에서 활용된 적이 있다 김남원[25]. 조사도구의 내용과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조사도구의 내용 및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수	Cronbach's a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현재 혼인상태, 자녀수, 월 평균수입, 주거형태	5			
은퇴인식	노인 되는 시기	9	.910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은퇴준비 시기(인지)				
	실제 은퇴준비 시기				
	자녀에게 부양기대 유무				
	주요 수입원				
노후생활 인식	최소 월 생활비	4	.673		
	월 적정 생활비				
	경제적 노후생활			4	.781
	신체적 노후생활			3	.811
	사회적 노후생활			3	.801
은퇴준비 행동	노후생활 인식 전체	11	.801		
	재정	8	.757		
	건강	4	.755		
	시간 및 여가	8	.760		
	역할	9	.870		
은퇴준비 행동 전체	29	.908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재정·주거	3	.793		
	경제활동	3	.792		
	건강관리	3	.821		

은퇴만족도	경제적 은퇴준비 전체	9	.822
	재무적	10	.951
	비재무적	3	.853
	은퇴만족도전체	13	.951

3. 측정도구의 검증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 상정한 측정도구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생 변수와 외생변수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은퇴 인식에 대한 질문 3 문항(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은퇴생활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양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을 역산하여 은퇴 인식이 강한 쪽으로 설정하였고, 노후생활 인식은 하위영역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 인식으로 나눈 다음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수는 은퇴준비 행동과 은퇴만족도로 설정하였다. 검증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는 .703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개념신뢰도는 .822~.920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었다. 평균분산추출이 .702~.843이다. 모두 0.7 이상임으로 개념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은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적 요인분석 결과이고, [그림 1]은 검증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경로도다.

표 3. 측정도구의 검증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α	CR	AVE	factor loading	t	측정 오차
은퇴만족도	.951	.915	.843	.644~.855	27.609	0.145
은퇴준비 행동	.912	.920	.743	.646~.914	17.274~20.605	0.243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822	.876	.702	.722~.895	24.139~28.032	0.302
은퇴 인식	.703	.822	.607	.694~.894	14.283~15.771	0.351
노후생활 인식	.801	.843	.662	.704~.887	17.133~17.353	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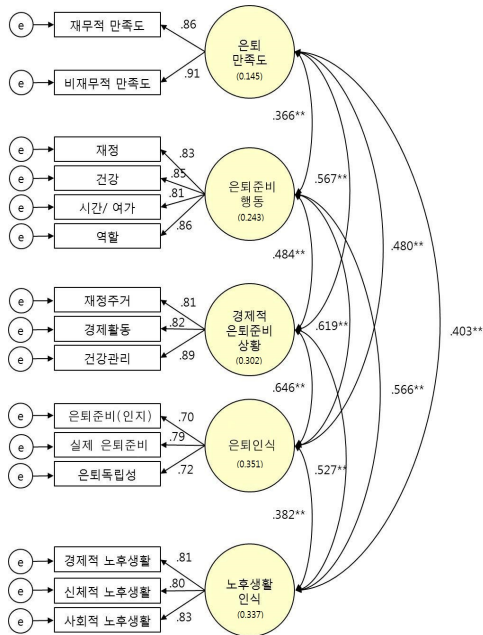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도구의 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도

3.1 측정도구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도구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한 결과, GFI .907, TLI(Tucker-Lewis Index: NNF1) .957, CFI는 .967로 아주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요인구조는 매우 높은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잔차도 RMSEA .0562(90% CI:.0497~.0630), RMR .0463으로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도구의 적합도 지수다.

표 4. 측정도구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GFI	CFI	TLI (NNF)	RMSEA 90%CI	RMR
1415.842	703	2.014	.907	.967	.957	.0562 (.0497~.0630)	.0463

3.2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은퇴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의 상관인 .738로 가장 높았으며, 은퇴인식의 평균분산추출이 .607로 가장 낮았다. 은

퇴인식의 평균분산추출이 .607> 은퇴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의 상관인 (.738)²=.544¹ 이므로 요인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정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 상정한 요인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모두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9]는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결과이다.

표 5.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 결과

요인	(1)	(2)	(3)	(4)	(5)
은퇴만족도(1)	.843				
은퇴준비 행동(2)	.366** (.134)	.743			
경제적 은퇴준비(3)	.567** (.321)	.484** (.234)	.702		
은퇴 인식(4)	.480** (.230)	.619** (.383)	.646** (.417)	.607	
노후생활 인식(5)	.403** (.162)	.566** (.320)	.527** (.278)	.738** (.544)	.662

p(0.01:**, p(0.05:*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파악하였고, 측정도구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내적일관성 척도로써 Cronbach's alpha값을 적용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독립이표본 t검증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현한 다음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 방법으로는 Duncan 기법을 적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자녀 수, 월

평균수입, 주거형태를 고려하였다.

1.1 연령에 따른 은퇴관련 요인의 차이

연령에 따라 은퇴관련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F=23.028, p<0.01$)은 30대($M=4.14, SD=0.493$), 50대($M=4.05, SD=0.486$), 20대($M=4.03, SD=0.606$), 40대($M=3.94, SD=0.521$), 60대($M=3.60, SD=0.488$)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은퇴준비 행동($F=28.264, p<0.01$)은 60대($M=3.44, SD=0.569$), 50대($M=3.14, SD=0.523$), 40대($M=3.06, SD=0.486$), 30대($M=2.92, SD=0.551$), 20대($M=2.89, SD=0.639$)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경제적 은퇴준비($F=9.356, p<0.01$)는 60대($M=3.13, SD=0.639$), 50대($M=2.95, SD=0.606$), 40대($M=2.90, SD=0.625$), 30대($M=2.86, SD=0.665$), 20대($M=2.74, SD=0.763$) 순으로 수준차이가 있었고, 은퇴만족도($F=15.530, p<0.01$)는 60대($M=3.17, SD=0.727$), 20대($M=3.14, SD=0.728$), 30대($M=2.94, SD=0.746$), 40대($M=2.81, SD=0.735$), 50대($M=2.80, SD=0.705$) 순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6]은 연령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검증 결과이다.

표 6. 연령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연령	n	M	SD	F	p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20대	375	4.03	0.606	23.028**	0.000
	30대	248	4.14	0.493		
	40대	337	3.94	0.521		
	50대	335	4.05	0.486		
	60대	120	3.60	0.488		
은퇴 준비행동	20대	375	2.89	0.639	28.264**	0.000
	30대	248	2.92	0.551		
	40대	337	3.06	0.486		
	50대	335	3.14	0.523		
	60대	120	3.44	0.569		
경제적 은퇴준비	20대	373	2.74	0.763	9.356**	0.000
	30대	247	2.86	0.665		
	40대	336	2.90	0.625		
	50대	329	2.95	0.606		
	60대	120	3.13	0.639		
은퇴만족도	20대	371	3.14	0.728	15.530**	0.000
	30대	247	2.94	0.746		
	40대	336	2.81	0.735		
	50대	326	2.80	0.705		
	60대	119	3.17	0.727		

$p<0.01$ **, $p<0.05$ *

1.2 자녀수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자녀수에 따라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검정 결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F=8.769, p<0.01$)은 자녀 없음($M=4.06, SD=0.582$), 1~2명($M=3.97, SD=0.514$), 3명 이상($M=3.86, SD=0.549$)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은퇴준비 행동($F=34.763, p<0.01$)은 3명 이상($M=3.16, SD=0.519$), 1~2명($M=3.13, SD=0.551$), 없음($M=2.88, SD=0.596$)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경제적 은퇴준비($F=16.955, p<0.01$)는 3명 이상($M=2.98, SD=0.631$), 1~2명($M=2.96, SD=0.640$), 없음($M=2.75, SD=0.718$) 순으로 수준차이가 있었다. 은퇴만족도($F=8.674, p<0.01$)는 자녀 없음($M=3.06, SD=0.758$), 1~2명($M=2.89, SD=0.757$), 3명 이상($M=2.85, SD=0.544$) 순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7]은 자녀수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자녀수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자녀수	n	M	SD	F	p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없음	509	4.06	0.582	8.769**	0.000
	1~2명	761	3.97	0.514		
	3명 이상	145	3.86	0.549		
은퇴준비 행동	없음	509	2.88	0.596	34.763**	0.000
	1~2명	762	3.13	0.551		
	3명 이상	144	3.16	0.519		
경제적 은퇴준비	없음	506	2.75	0.718	16.995**	0.000
	1~2명	756	2.96	0.640		
	3명 이상	143	2.98	0.631		
은퇴만족도	없음	504	3.06	0.758	8.674**	0.000
	1~2명	751	2.89	0.757		
	3명 이상	144	2.85	0.544		

$p<0.01$ **, $p<0.05$ *

1.3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월 평균수입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을 제외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은퇴준비 행동($F=10.748, p<0.01$)은 1,000만 원 이상($M=3.28, SD=0.533$), 500~1,000만원($M=3.15, SD=0.583$), 400~500만원($M=3.02, SD=0.519$), 400만원 미만($M=2.98, SD=0.598$)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경제적 은퇴준비($F=31.912, p<0.01$)는 1,000만 원 이상($M=3.27,$

SD=0.480), 500~1,000만원(M=3.07, SD=0.626), 400~500만원(M=2.93, SD=0.577), 400만원 미만(M=2.71, SD=0.725) 순으로 수준차이가 있었다. 은퇴만족도 ($F=20.189, p<0.01$)는 1,000만 원 이상(M=3.47, SD=0.516), 500~1,000만원(M=3.08, SD=0.732), 400~500만원(M=2.93, SD=0.674), 400만원 미만(M=2.83, SD=0.773) 순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8] 은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검정 결과다.

표 8.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월 평균수입	n	M	SD	F	p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400만원미만	636	4.02	0.531	0.934	0.423
	400~500만원	368	3.96	0.562		
	500~1천만원	344	3.99	0.575		
	1천만원이상	67	3.97	0.437		
은퇴준비 행동	400만원미만	636	2.98	0.598	10.748**	0.000
	400~500만원	368	3.02	0.519		
	500~1천만원	344	3.15	0.583		
	1천만원이상	67	3.28	0.533		
경제적 은퇴준비	400만원미만	630	2.71	0.725	31.912**	0.000
	400~500만원	365	2.93	0.577		
	500~1천만원	343	3.07	0.626		
	1천만원이상	67	3.27	0.480		
은퇴만족도	400만원미만	627	2.83	0.773	20.189**	0.000
	400~500만원	364	2.93	0.674		
	500~1천만원	341	3.08	0.732		
	1천만원이상	67	3.47	0.516		

$\alpha 0.01$:**, $\alpha 0.05$:*

1.4 주거 형태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주거형태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F=8.448, p<0.01$)은 자가(M=4.05, SD=0.511), 전세(M=3.97, SD=0.597), 기타(M=3.97, SD=0.598), 월세(M=3.85, SD=0.553)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경제적 은퇴준비 ($F=4.549, p<0.01$)는 자가(M=2.93, SD=0.655), 월세(M=2.87, SD=0.604), 기타(M=2.81, SD=0.836), 전세(M=2.77, SD=0.722) 순이었다. [표 9]는 주거형태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검정 결과다.

표 9. 주거형태에 따른 은퇴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주거형태	n	M	SD	F	p
노후생활인식	자가	819	4.05	0.511	8.448**	0.000
	전세	292	3.97	0.597		
	월세	222	3.85	0.553		
	기타	82	3.97	0.598		
은퇴준비행동	자가	818	3.05	0.575	1.808	0.144
	전세	293	3.00	0.610		
	월세	222	3.10	0.534		
	기타	82	2.97	0.587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자가	811	2.93	0.655	4.549**	0.004
	전세	293	2.77	0.722		
	월세	220	2.87	0.604		
	기타	81	2.81	0.836		
은퇴만족도	자가	808	2.92	0.734	1.924	0.124
	전세	291	2.95	0.784		
	월세	219	3.01	0.686		
	기타	81	3.08	0.808		

$\alpha 0.01$:**, $\alpha 0.05$:*

2. 은퇴 및 노후생활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

2.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상정한 측정모형은 $\chi^2=1067.664(df=708)$, $\chi^2/df=1.508$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 의 값은 일반적으로 3이하에서 만족된다고 한다. 적합도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는 .942,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88, TLI는 .984로 아주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MR(root mean residual)는 .0308,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또한 .0349로 추정의 정확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GFI	CFI	TLI (NNFI)	RMSEA 90% C.I.	RMR
1067.664	708	1.508	.942	.988	.984	.0349 (.0262~.0430)	.0308

2.2 연구모형 검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은퇴만족도로 구성된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은퇴준비 행동과 경제적 은퇴준비 행동을 ‘은퇴준비 행동’이라는 변인으로 변경한 이유는 은퇴준비 행동에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된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모형을 구정방정식으로 구현한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생변수 은퇴 인식→은퇴준비 행동($r=.332,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노후생활 인식→은퇴준비 행동($r=.472, p<0.01$)의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했다. 은퇴 인식→은퇴만족도($r=.404,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노후생활 인식→은퇴만족도($r=.115, p<0.05$) 경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내생변수의 관계에서는 은퇴준비 행동→은퇴만족도($r=.287,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 인식(준비성과 자립성으로 구성)과 노후생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은퇴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만족도 및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현한 결과가 [표 1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 표현된 계수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기입하였다.

표 11. 은퇴 및 노후생활인식과 은퇴만족도 및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t
은퇴인식→은퇴준비 행동	.332	.319	.048	6.687**
노후생활 인식→은퇴준비 행동	.472	.450	.048	9.429**
은퇴인식→은퇴만족도	.404	.394	.051	7.704**
노후생활 인식→은퇴만족도	.115	.101	.048	2.104*
은퇴준비 행동→은퇴만족도	.287	.279	.058	4.835**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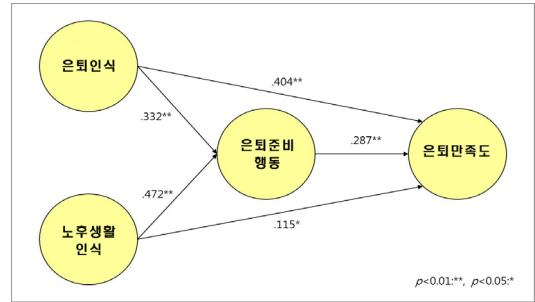


그림 2. 은퇴 및 노후생활인식, 은퇴준비행동, 은퇴만족도의 인과관계

V.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가 차이가 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고, 은퇴 이후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만족도가 긍정적이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며,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이 많고, 배우자가 없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고, 월평균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으며, 학력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일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광민주[14], 홍성희, 고화정, 김미령, 홍성원, 이소정[16-20]와 결과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 이후 삶 기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은 적절한 은퇴준비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가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은퇴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은퇴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같은 주관적 은퇴준비 요인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김종모[3], 정운양[7], 이ური[9], 강정애[11], 김연진[13], 이소정[20], 배재덕[25]와 은퇴준비 행동 여부 같은 객관적 은퇴준비 변인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박창제[5], 여윤경[6], 배문조[8], 김연진[13], 차경욱[15], 홍성희[16], 김정현[2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국외에서 실시된 은퇴관련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사점을 언급하고 있다. Tomas, E., & Biddle[26]은 퇴직 후 삶에 불만족한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준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준비를 한 사람들의 은퇴 이후 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삶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Pinquart, Martin & Schindler[27]는 사회 경제적 자원(건강 및 배우자를 포함)이 풍부하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 변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가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은퇴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퇴준비 행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셋째,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충분성과 적정성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은퇴준비 행동과 같은 객관적인 변인과 은퇴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지지 같은 주관적 변인을 모두 파악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tchley R[28]은 성공 노후의 요소를 친구, 직장동료 사회단체 교류가 포함되는 사회활동이라고 설명하였고, Hiral[22]는 노후에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 직장동료, 종교단체, 공공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onwell, Y.[29]는 젊어서부터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생활한 사람은 노년기에도 열심히 생활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였다. 노년기에는 이와 같은

정서적 지지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정서적 지지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은퇴준비이다. 이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충분성과 적정성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은퇴준비 행동과 같은 객관적인 변인과 은퇴에 대한 인식, 정서적 지지 기반 같은 주관적 변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어떻게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월평균수입, 거주형태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가 차이가 났다. 둘째,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및 은퇴만족도는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 행동이 적극적이고, 은퇴 이후 삶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셋째, 은퇴준비 행동 실시 여부가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은퇴관련 연구는 은퇴준비와 관련된 객관적, 주관적 변인들을 파악해 개인의 특성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은퇴준비 관련 실증연구가 더 필요하다. 개개인이 원하는 은퇴 이후 삶, 은퇴준비의 충분성, 적정성, 당위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은퇴준비 기준을 제시한다면 인식에 따라 은퇴만족도가 차이가 나고, 한계에 도달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김주성[30]이 제안한대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은퇴준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퇴준비는 중장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얼마나 빨리 은퇴준비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용진, 이기호, *30대부터 준비하는 은퇴 후 30년*,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6.
- [2]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3] 김종모,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 이지영, 최현자,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29권, 제1호, pp.215-230, 2009.
- [5]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6] 여윤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韓國老年學*, 제25권, 제1호, pp.21-36, 2005.
- [7] 정운영, 백은영,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社會保障研究*, pp.115-139, 2009.
- [8] 배문조, 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 [9] 이우리, *은퇴인식과 여가만족도가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0] 장몽교, *20·30대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1] 강정애, *은퇴 예정자의 은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은퇴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2] 허균석, *경제적 은퇴준비 특성과 은퇴생활수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3] 김연진, *한국형 은퇴준비 척도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 팍민주, 이희숙, “은퇴시점 계획을 하고 있는 50대 가계의 특성,” *생활과학논총*, pp.177-187, 2012.
- [15]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49-163, 2008.
- [16] 홍성희, 박인숙,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9-104, 2007.
- [17] 고화정, *한국 은퇴자 유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8] 김미령,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은퇴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韓國老年學*, Vol.33, No.3, pp.617-636, 2013.
- [19] 홍성원,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0] 이소경,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72-80, 2009.
- [21] Fishbein & Ajzen,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Fishbein & Ajzen)*, 1975.
- [22] Vicki Schram Fitzsimmons, Tahira K. Hira, Jean W. Bauer, and Jeanne L. Hafstrom,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14, No.3, pp.257-274, 1993.
- [23]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제58권, pp.133-162, 2012.
- [24] 김정현, *중년 남성의 포커싱적 태도가 은퇴준비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년남성교사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5] 김남원, 장선철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6권, 제7호, pp.522-531, 2016.
- [26] Roland Robertson, “Role Theory, Concepts and Research by Bruce J. Biddl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17, No.4, pp.442-443,

1966.

- [27] Pinguart, Martin & Schindler,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 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3), pp.442-455, 2007.
- [28] R.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Gerontologist*, Vol.29, pp.183-190, 1989.
- [29] Y. Conwell, "Suicide in Later Life: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1, No.1, pp.32-47, 2001.
- [30]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15, No.3, pp.97-119, 2010.

임 은 실(Eun-Sil Lim)

정회원



- 2004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농학사)
- 2013년 2월 : 한일장신대 심리치료대학원(미술심리치료 석사)
- 2015년 2월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상담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휴먼서비스콘텐츠

저 자 소 개

김 남 원(Nam-Wo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전주대학교(상담심리학학사)
- 2010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인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상담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휴먼서비스콘텐츠

장 선 철(Sun-Chul Jang)

정회원



- 1977년 2월 : 대구대학교(특수교육학사)
- 1981년 3월 : 고려대학교(상담심리석사)
- 2003년 2월 : 건국대학교(교육학 박사-진로상담)

▪ 현재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휴먼서비스콘텐츠, 진로교육 및 상담 콘텐츠